

파레토 효율과 평등*

김 석 호**

논문초록 파레토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 불평등 분배구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득의 사회주의적 재분배를 반대하였다. 또한 파레토 효율과 평등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파레토 이론의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면모는 잘 알려져 왔으나, 변화와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 진보적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파레토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이 극심하여 세대간 빈부가 대물림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경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균형을 상실한다. 파레토의 균형을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효율과 평등은 선순환할 수 있는 기제이다.

핵심 주제어: 파레토효율, 평등, 파레토법칙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3, D3, D6, O4

투고 일자: 2015. 2. 5. 심사 및 수정 일자: 2015. 8. 31. 게재 확정 일자: 2015. 9. 16.

* 제원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4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2014. 2. 12.) 및 한국경제학사학회 제43차 세미나(2014. 12. 26.)에서 발표된 초안 및 수정본에 유익한 의견 주신 김광수, 김균, 김정주, 김진방, 박만섭, 이규상, 이남형, 이상현, 이상호, 이천표, 홍기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파레토를 처음 연구할 때 지도해주셨던 Tony Brewer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재 과정에서 논평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강사, e-mail: sukhokim@snu.ac.kr

I. 서 론

앤서니 앳킨슨(Anthony B. Atkinson)이 올해 출간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의 머리말 첫 문장에서 적은 바와 같이 “불평등은 이제 공개적인 토론의 중심에 서 있다. 1퍼센트와 99퍼센트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불평등의 크기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앳킨슨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말을 빌어 “불평등 확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득불평등을 줄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앳킨슨, 2015, p. 7)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앳킨슨처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으로 보고 재분배등을 통해 교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Reich, 2010; Stiglitz, 2012; Facundo, Atkinson, Piketty and Saez, 2013; Bivens and Mishel, 2013; Corak, 2013; Piketty, 2013; Solow, 2014 등)이 있는가 하면, 소득의 불평등이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인 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경제학자들(Rosen, 1981; Kaplan and Rauh, 2013; Mankiw, 2013, 2014; Burkhauser and Larrimore, 2013 등)도 있어 상호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이러한 이견의 근저에는 실증과학을 지향하는 현대경제학의 내재 규범인 효율과 소득의 평등이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작용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를 감수하고라도 효율을 높이고, 성장을 통해 경제의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과 경제성장을 희생하고라도 한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간 소득 배분의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할 것인지가 큰 틀에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와 ‘경제 민주화’가 서로 다른 시대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경제 민주화’ 및 ‘동반성장’이 ‘경제 살리기’와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현대경제학은 효율 개념을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정의한 바에 따르고, 이를 ‘파레토효율(Pareto Efficiency)’ 또는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이라고 부른다.¹⁾ 이러한 효율 개념과 함께 널리 알려진 파레토의 현대경제학에의 공헌 중

1) Berthouet and Delclite (2014)는 197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파레토 ‘최적’이라고 지칭하였으나 70년대 이후 파레토 ‘효율’이라는 명칭이 “최적”을 점차 대체해 가는 추세임을 보이고, 이를 학자들의 이해가 규범적 의미에서 실증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나는 그의 소득분배법칙인데, 이에 따르면, 소득의 일정한 불평등 분배구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이 ‘파레토법칙 (Pareto Principle)’은 일반적으로 소득분배가 현실에서 불평등한 현상을 합리화하고 고착화하는 이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경제학에서 다시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대 경제학에서 효율 개념을 정립하고 소득분배의 법칙을 제시한 파레토의 이론이 경제적 효율과 소득 평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기존의 대체적인 시각은 파레토의 소득분배에 관한 입장을 현상고착적으로 인식하여 왔는데, 이는 파레토가 균등분배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고, 또한 사회주의적 소득재분배를 반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파레토의 이론이 동시에 소득분배의 지나친 불평등 심화를 지양하며 동적인 성격도 지녔음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듯 하다. 안정 추구 요소에 천착한 기존의 파레토에 대한 일반적 독해에 더하여 본 논문은 파레토의 주저에서 변화 추구 요소를 함께 보는 새로운 독해를 소개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균등 소득분배를 한 경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반면, 그렇다고 얼마만큼의 불평등이 수인할 수 있는 한계인가 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도 안정과 변화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파레토의 관점에서 도출할 것이다.

II. 파레토는 사회주의적 소득 재분배를 반대

파레토는 당시의 경제학이 아직 과학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경제학을 실증과학으로 정립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역할은 경제 현상의 규칙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쳐야 하는 바, 규범이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철도회사와 철강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였던 그는 실제적인 이론가로서, 고귀하게 포장된 이상에 대해 시니컬하게 생각하였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사실일 뿐이고, 표면적으로 내세워지는 윤리나 도덕은 진의를 숨기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경제학이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실증과학이 되려면 도덕적 윤리적 중립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파레토의 입장이었다.

파레토는 당시의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련하여 인본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한 재분배 주장에 대해 그 선의 여부를 막론하고 논의를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가 통계 분석을 통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경험적으로 관찰되었는 바, 균등분배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단기적,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러한 경험적 법칙에 더하여, 각 개인의 역량과 선호가 다르니 그에 따라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파레토의 주장은 파레토의 소득분배에 대한 관점을 보수적으로만 인식케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파레토의 논리에 대해 살펴본다.

Ⅲ. 파레토 소득분배의 법칙

1. 경험적 법칙: 일정한 불평등 소득분배 구조가 항상적

파레토는 “19세기의 잉글랜드, 프러시아, 색소니(Saxony), 올덴부르크 공국(Duchy of Oldenbourg), 15세기 및 19세기의 베일(Bale), 스위스의 보드주(Canton de Vaud), 프랑스 파리, 르네상스시기의 플로렌스, 16세기의 아우스부르크(Ausburg) 그리고 18세기의 페루”(Cirillo, 1979, p. 81)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와 국가의 소득 통계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은 소득분배법칙을 1895년 1월호 *Giornale degli Economisti* 라는 저널에 ‘La legge della domand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처음 발표하였다(Cirillo, 1979, p. 61). 이후 *Cours d’économie politique*, *Manuale d’economia politica* 등의 저술²⁾을 통해 그 법칙을 제시하였다.

파레토는 법칙 도출에 이용한 소득 자료와 관련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가 생

2) 동 저널에 1896년에서 1897년에 걸쳐 실린 프랜시스 에지워드(F. Y. Edgeworth)와의 논쟁, 1896년에 1권, 1897년에 2권으로 출간한 *Cours d’économie politique*(Cirilo, 1979, pp. 80-87에 소득분배에 관한 부분 영어로 번역), 1897년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게재한 논문 ‘The New Theories of Economics’, 그리고 1907년에 이탈리아어로 출간한 *Manuale d’economia politica*, 1909년에 수학적 부록을 확장하여 프랑스어로 출간한 *Manuel d’économie politique*, 및 파레토 사후에 1971년에 영어로 번역 출간된 *Manual of Political Economy* 등에 소득분배법칙이 제시되었다.

존할 돈을 소득으로 갖고 있다고 고려”될 것인 바, 그 소득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이든, 자선으로 주어진 것이든 또는 합법, 불법적으로 그에게 있게 된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Cirillo, 1979, p. 83).

사람들이 자신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총 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그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건 관계가 없다. 유산 상속에 의한 것이건,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건, 남의 돈을 훔친 절도의 결과이든, 자선에 의해 주어진 것이건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 분포를 보인다(Pareto, 1896[2008], p. 429).

파레토는 소득 자료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소득의 일정한 불평등 분배 구조가 다양한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된 법칙으로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 해의 소득을 X , 그 소득 이상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N 으로 놓고, X 와 N 과의 관계에서 경험적 통계로부터 발견된 상수가 각각 A 와 α 라고 할 때, 소득의 상위 범위에서의 분포는 대략 $N = AX^{-\alpha}$ 의 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N 과 X 등에 로그값을 씌우면 앞의 식은 $\log N = \log A - \alpha \log X$ 로 써질 수 있고, 이 때 $\log N$ 과 $\log X$ 와는 역의 선형 함수관계에 있다. 여러 국가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파레토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log X$ 의 기울기 α 는 충분히 높은 소득 수준에서 1.5³⁾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Cirillo, 1979, p. 62). 이때의 α 를 “파레토상수”라고 부르는데(한국이론경제연구학회, 1957, p. 504) 파레토에 의하면 이 수치는 그의 실증분석 대상이 된 특정 국가와 시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도 ...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주종환, 1977, p. 434). 조셉 퍼스키(Joseph Perskey)에 따르면 α 가 1.5 라는 것은 지니계수로는 0.5에 해당하고, 이는 상위 10퍼센트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42퍼센트를 차지하고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58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erskey, 1992, p. 183 n2).

3) 파레토의 소득분배법칙을 검증하는 수많은 실증연구가 있어왔는데, 본 논문은 현실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레토법칙의 존재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거나,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 합리적 법칙: 인간의 이질성에 기인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소득분배분포 구조를 일반 법칙화할 수 있다는 파레토의 주장에 대해 에지워드는 통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곡선으로 발견한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곧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법칙(rational law)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는데(Edgeworth, 1896[2008], p. 425; Pareto, 1896[2008], p. 431; Cirillo, 1979, p. 68), 파레토는 그가 발견한 소득분배구조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함으로써 경험적 법칙이 합리적 법칙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Pareto, 1896[2008], p. 432).

파레토는 부의 분배를 결정짓는 요소를 운, 경제제도 및 조직,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이 때 운이라 함은 우리가 그 진정한 원인을 잘 모르는 모든 것들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소득분포 곡선은 정규분포 확률곡선과 비슷한 면이 있으니, 소득의 분포가 단순히 운의 결과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부의 분포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고,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운이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고려할 만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분포 곡선의 형태는 정규분포와 상당히 다르며, 부의 분포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니 운뿐만이 아니라 소득분포가 어떤 일정한 곡선 형태를 나타내는 경향을 낳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의 분포가 경제적인 제도 및 조직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겠으나, 경제적 조건이 다양한 국가들간에도 그 분배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분배가 제도적 요인에는 매우 조금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의 분포가 서로 다른 시대, 상황, 그리고 조직에 관계 없이 별 차이가 없다면 인간의 본성에서 그러한 현상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찾으려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파레토의 주장이다(Cirillo, 1979, pp. 80-84).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파레토에 의하면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이다. 즉,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리적, 도덕적 그리고 지적 관점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Pareto, 1927[1971], p. 281). 이렇게 인간의 능력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경우 그 성적은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의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소득의 분포는 중위수를 중심으로 대칭적이지 않고 상층부분은 매우 가늘고 길게 분포되고 하층부분은 상당히 압축되어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로부터 소득이 평균보다 더 위인 사람과 더 아래인 사람들간 개인의 능력에 대칭성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평균으로부터 동일한 만큼 이탈하는 두 사람중 돈을 버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매우 높은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반면⁴⁾ 동일한 만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최소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더 낮은 소득을 갖지는 않되 평균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작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Pareto, 1927[1971], p. 284).

평균 이상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니, 부의 획득과 보전이 순전히 운에 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파레토의 해석이다. 더불어 파레토가 통계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곡선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매우 조금 변화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국가와 시대에도 곡선의 모습이 비슷하고 곡선 형태에 놀랄만한 안정성이 보이니, 제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파레토의 주장이다(Pareto, 1927[1971], pp. 285-286). 파레토에 따르면 사람들 역량의 불평등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대응하게 되는 것으로 (Pareto, 1927[1971], p. 281), 어떠한 사회에나 부자와 가난한 이가 있게 마련이다(Pareto, 1927[1971], p. 90). 더불어, 각 개인의 선호도 이질적(Pareto, 1927[1971], p. 45)이니, 의당 각 개인이 향유하는 물질의 양이 다른 것 자체를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경험적인 법칙을 일반화하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충분하지 않으나(Cirillo, 1979, p. 82) 부의 확보와 보존이 구조적이니 이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파레토의 주장이다(Pareto, 1927[1971], pp. 284-5).

이에 대해 시릴로는 파레토가 “충분히 이상하게도” 사회에서 사람들간에 서로 다른 역량에 부의 불평등이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비판한다(Cirillo, 1979, p. 18). 이에 관하여는 리처드 토니(Richard Henry Tawney)가 그의 저서 『평등』에서 인간의 이질성이 소득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한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재능이라는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이 사실로부터, 그런 개인들이나 계급들은 남들보다 적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거나 법적인 지위, 보전 또는 경제적인 조치 같은 문제(이것은 공동체의 통제 안에 있다)에 있어서 열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

4) Sherwin Rosen(1981)이 근대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편향적으로 몰리게 되는 경향을 이야기 한 것도 같은 맥락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osen, 1981, p. 845).

다(토니, 1931[1982], p. 59).

3.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임시적일 뿐

에지워드는 파레토가 제시한 소득분포에 관한 식과 곡선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개혁주의자들이 꿈꾸는 “재산의 재분배로 바뀌어질 수 없는 어떤 소득분배의 분포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한다(Edgeworth, 1896[2008], p. 425; 1897[2008], p. 437). 시릴로도 파레토가 경험적으로 발견한 소득분배의 법칙은 사회주의자들의 소득 재분배 주장에 대응하여 소득 분배에 단순히 개입하여서는 불평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정리한다(Cirillo, 1979, p. 24). 파레토는 이에 대해 Fig. 58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자로부터 소득을 박탈하거나, 기아로 가난한 이들이 박멸되는 경우에도 균등 분배는 장기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며 이내 곧 새로운 소득 불평등 상태로 회귀된다는 것이다(Pareto, 1927[1971], p. 292).

[Fig. 58에서] 만약 가장 부유한 시민들이 그들의 모든 소득을 빼앗기게 되면 edc 영역이 눌러서 없어지겠으나, 이내 곧 또는 더 이후에 ats 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 만약 기근으로 인구중 가장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akb'f$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에도 ats 와 같은 모습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Pareto, 1927[1971], p.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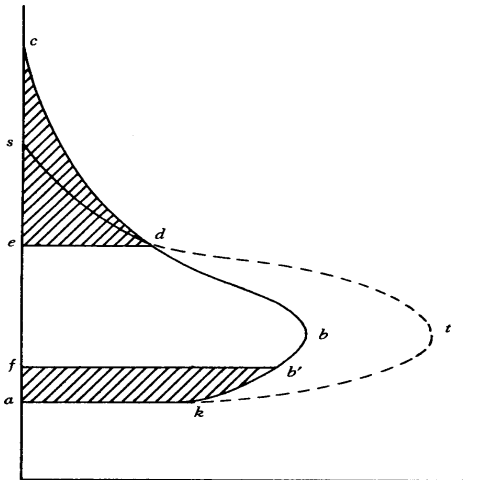


FIG. 58

파레토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방도를 찾아내는 일이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지를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나, 자신이 소득분배의 법칙을 발견한 사실이 사회적 조건의 평등을 제고하려는 열망을 지닌 이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자신은 진실을 드러내는 과학을 추구할 뿐이라면서 (Pareto, 1897, pp. 485-487), 소득 및 부의 사회주의적 균등 재분배를 반대한다.

4. 파레토법칙에 대한 비판

천문학에서의 케플러의 법칙 (Kepler's law)에 비견될 수 있을 것 (Pareto, 1897, pp. 501-502) 이라고 파레토가 자부했던 소득분배의 법칙⁵⁾에 대하여 폴 사무엘슨 (Paul A. Samuelson)은 “사회 및 정치제도와 조세에 관계 없이 소득분배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 경향이 존재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지난 80년간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그 필연성은 물론 보편성이 기각된다” (Samuelson, 1980, p. 82n)며 비판한다. 이렇게 파레토가 시도했던 특정 시대 및 국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의 과도한 일반화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사무엘슨은 보다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힘이 너무나 강력하고 영속적이어서 국가의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파레토의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파레토의 입장은 경제학이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고전학과 경제학의 전통을 본질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Samuelson, 1980, p. 755). 시릴로도 파레토가 도입한 소득분배의 법칙이 현실에서의 부의 불평등 분배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Cirillo, 1979, p. 18).

5) 그런데, 파레토는 당시 경제학 이론이 부의 분배 결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 한계에 대해서 토로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케플러의 법칙을 합리적인 법칙으로 만든 만유인력과 같은 이론이 부의 분배와 관련하여는 아직 부재”하다는 것이다 (Pareto, 1897, p. 502).

IV. 파레토 효율(최적)

1. 파레토 효율(최적)의 개념

파레토는 파레토 최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위치에서 매우 조금이라도 이동하면서 그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누리는 경제적 효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최대의 경제적 효용(Maximum Ophelimity)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Pareto, 1927[1971] p.261). 파레토는 이어서 균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위치로부터 매우 조금 이동하였을 때 만약 모든 개인들의 후생이 증대하면, 새 위치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 반면 모든 개인들의 후생이 감소하면 모두에게 덜 이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동의 결과] 누군가의 후생은 그대로이고 변함없을 수도 ... 만약 이 약간의 이동이 어떤 개인의 후생은 증가시키고, 다른 개인의 후생은 감소한다면 전체 사회에 유리해졌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Pareto, 1927[1971], p. 451).

그런데 이러한 파레토 효율 개념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람직한 규범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에서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의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다.

2. 파레토 효율 개념에 대한 비판: 백만장자와 빈털터리

파레토 효율(최적)에 대해 Tjalling Koopmans(1957)는 최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파레토 효율(최적) 상태에서의 경쟁적 균형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것보다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써서는 안되고, “분배적 효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것이 콥만스의 지적이다.

Cirillo(1979)도 후생의 극대화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만약 한 사회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당초에 그 중 한 사람은 빈털터리 가난뱅이이고 다른 사람은 백만장자인 경우처럼 사회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매우 극심한 경우였다면,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위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것이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매우 강력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후생의 극대화는 사회 전체의 후생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가치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레토는 기존의 소득분배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소득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그가 계약곡선이 최적 후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용한 것은 이미 후생에 대한 가치판단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다.

Edward Zajac(1995)도 파레토 효율 개념의 핵심에는 상호 유리한 행동 또는 교역의 이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성이 있다고 정리한다. (1) 유일하지 않다. (2) 각 경제주체들의 당초 부존 자원이나 소득에 의존한다. (3) 기껏해야 필요조건 또는 최소조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직관적인 정의의 관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교과서의 예를 들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경우도 파레토 최적임을 지적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상호 이득을 위해 교환할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을 공정한 상태로 보는 이들은 몇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Amartya Sen(1973)은 좀 더 나아가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바로 분배에 대해 판단할 필요를 없애기 위해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센은 파레토 최적이란 어떠한 변화도 가능하지 않는 현상유지를 보장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이 부유한 사람들의 부를 삭감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다면, 그 상태가 부자와 가난한 이들간의 극심한 빈부격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케익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드는 어떠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므로 케익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하는 분배문제에 있어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은 무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John Rawls(1972)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관찰을 하였다. 사회 구성원중 단 한 사람이 모든 상품 저량을 받는 분배는 효율적이다. 누군가를 더 좋게 하고 어느 누구도 나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 재배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분배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재화를 교환할 의사가 있도록 하는 한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교역에 대한 의지의 존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효율적 분배란 더 이상 수익성 있는 교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는 분배는 효율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에 대가로 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파레토 효율에 대해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극단적이고 명백히 불공정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파레토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에 대한 피케티(Piketty) 적 언어로는, 상위 1%가 부를 독점하고 하위 99%가 빈곤하거나 빈곤의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도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파레토의 소득분배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논의를 함께 고려할 때 파레토 효율 개념은 평등과는 상치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된다.

V. 극심한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분배는 파레토 균형에서 이탈

이렇게 파레토의 소득분배 법칙과 파레토 효율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파레토 이론의 안정을 지향하는 보수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는데, 파레토가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동시에 추구하여 양자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 바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파레토는 근대사회에서 안정성의 요소를 사유재산 및 상속제도에서 찾고, 변화와 선택의 요소를 누구나 각 개인이 사회 위계에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까지 상승할 실질적 기회 존재에서 찾는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완벽하여 자신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에서 태어난 사실 만으로 평생 풍요로운 부를 누리거나,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실때문에 평생을 빈곤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도 문제이고, 그 반대로 경제적 계급의 변동성이 무한대인 경우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각 개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좌절하고 상심하게 하므로 또한 문제라면서 안정과 변화의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Pareto, 1927[1971], pp.313-4). 이러한 차원에서 파레토는 한편으로 사회주의적 소득의 균등 재분배를 반대하였으나, 동시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극심하게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한 불평등의 심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파레토에 의하면 기존 사회의 정서, 제도 및 관습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최선으로 적응한 결과로서 균형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Pareto, 1927[1971], p.68), 이러한 경제적 균형은 조건이나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무한정 유지될 상태를 말하는데(Pareto, 1927[1971], p.108), 소득의 불평등이

극심하면 균형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VI. 엘리트의 순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파레토는 균등하지 않은 소득분포가 우연적이지 않고 구조적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소득분배법칙을 통해 주장하였으나, 이와 함께 소득분배구조가 본질적으로 고착적이지 않다고 본다. 즉, 파레토에 의하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엘리트 계층은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바로 ‘엘리트의 순환(Circulation of the elites)’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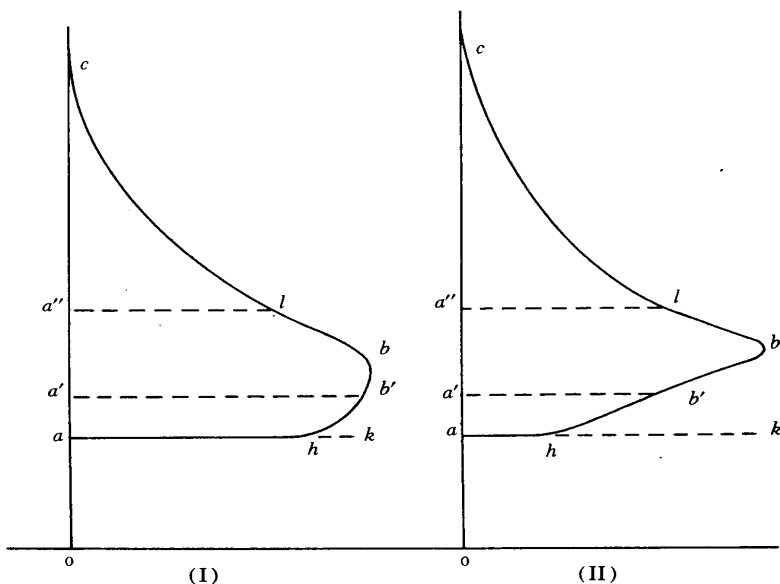


FIG. 56.

Fig. 56에서 $ahbc$ 의 영역은 한 사회의 소득분배분포를 보여준다. 이때 곡선의 외형은 잘 변화하지 않는 반면, 내부 영역은 끊임없는 운동 상태에 있다. 어떤 개인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다. ah 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고, 경험에 따르면 귀족층이 영속하지 못한다. 하류층에 해당하는 $ahb'a'$ 영역에서는 소득이 매우 낮아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생존하지 못한다. 이 영역에서는 극심한 빈곤이 나쁜 요소 만이 아니라 좋

은 요소 까지도 가치를 절하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선택이 오로지 매우 작은 정도로만 작동한다. 그 다음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a'b'bla''$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선택이 최대로 작동한다. 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보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으나 최선의 요소들을 절망하게 할 만큼 소득이 낮은 것도 아니다. 이 중산층에서 소득이 높은 상류층의 $a''lc$ 영역으로 상승할 미래의 엘리트계층이 개발되는 반면 열등한 요소들은 하층의 $ahb'a'$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어 제거된다(Pareto, 1927[1971] pp. 286-288). 즉, 파레토에 따르면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하층민은 계속 생존이 어려운 반면, 기존의 상류계층을 구성하던 이들 중 능력있고 의지가 강한 이들은 살아 남고, 무능하고 심약한 이들은 도태되며, 기존에 상류층에 속하지 못했던 이들 중 능력있는 자들은 적자생존하여 도태된 기존 엘리트계층을 대체하고 새로운 상층 엘리트계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인 바(Pareto, 1927[1971], pp. 90-91, p. 287), 이러한 엘리트의 순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소득 및 부의 분배 불평등이 극심하여 부와 빈곤의 대물림이 각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지속되게 되면, 상류 엘리트계층의 자제들중 집안의 부유함으로 인해 무능하고 게으르면서도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며 부를 낭비하는 자들이 상당하게 되고, 반면 향후 상층 엘리트가 될 수 있었을 중산층은 붕괴되고 희망을 상실한 하층민으로 전환되는 바, 이럴 경우 새로운 엘리트의 출현으로 혁신되고 경제 전체를 살릴 요소가 파괴되는 즉, 인체로 말하면 체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 효율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⁶⁾ 이를 파레토 효율(최적)과 연계하여 생각하면 한 사람이 모든 부를 갖고, 다른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백만장자-빈털터리상황은 수 많은 가능한 파레토 균형점 중의 하나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동적으

6) 이는 Joseph Stiglitz (2013)가 인용한 Colin Camerer and Richard Thaler (1995)의 최후통첩 게임을 연상케 한다. 피실험자 일인당 100달러를 지급하고 상대방과 그 돈을 마음대로 나눠가지도록 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제시된 배분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둘 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표준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100달러를 가진 각자는 자기 몫으로 99달러를 챙기고 상대방에 1달러를 제안할 것이고, 상대방도 이를 거부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보다 1달러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안자들은 평균적으로 30-4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상대방은 자기 몫이 20달러 이하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을 대체로 거부하였다. 누구나 균등분배를 원하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불평등수준에는 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 볼 때 그러한 자원배분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레토에 의하면 경제의 붕괴는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 그로 인한 항상적 과잉생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의 극심에 의해 초래된다(Pareto, 1927[1971], p. 69, p. 288).

파레토에 따르면 사회 경제내 각 개인들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윈(Darwin)적인 선택은 특정한 형태를 결정짓지는 않고, 환경에 적응하기에 적당한 형태에서 지나치게 이탈된 형태를 파괴할 뿐이다. 따라서, 균형 자체가 자동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균형으로부터 지나치게 이탈하지 않도록 상하한의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인데(Pareto, 1927[1971], p. 68), 과도한 빈부격차는 시장에서 가능한 하나의 균형점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균형에서 이탈된 모습이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되어 엘리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1930년대의 대공황기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처럼) 파국을 맞게 되고(Pareto, 1927[1971], p. 108), 결국 균형으로 회귀하는 힘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Pareto, 1927[1971], p. 70). 따라서, 파레토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배의 법칙은 균등분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나 극심한 불평등도 의당 수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수인의 한도는 엘리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의해 판단이 된다.⁷⁾

VII.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제공되는 방식의 경제성장이 필요

엘리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하여 ‘기회의 공평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레토는 그러한 ‘과정의 평등’이 법조문이나 형식적, 절차적 그리고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각자 자신이 현재 속한 경제적 계층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만 된다고 강조한다(Pareto, 1927[1971], p. 289). 예를 들어 졸병에서 출발하여 장군도 될 수 있다는 법, 관습 및 제도적 장치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쟁이 발발하여야만 실제로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가장 가난한 시민도 부자가 되고 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다

7) 물론 엘리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는 소득분배가 균등해 진다는 것이 아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극심하여 엘리트의 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는 정상적인 작동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는 법조문이나 관습의 형식적 존재로는 부족하며, 상업적 산업적 발달이 활발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areto, 1927[1971], p. 316-7). 즉, 경제가 정체상태에 있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활발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상호 선순환 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설사 엘리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들, 당초 상류층에 속하지 못했으나 능력있는 자들이 기존의 상류층을 구성했던 무능한 자들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니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파레토는 그가 가난한 계급의 상황을 개선하는 직접적 정책을 이야기 하지 않고 엘리트의 순환만 이야기하였다고 비판을 받았으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엘리트간의 투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 부산물로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도 상황이 개선된다고 주장한다(Pareto, 1927[1971] p. 301). 이러한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VIII. 경제성장과 노동자의 몫 및 평등성 증대 메카니즘

파레토는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몫을 증대하고 평등성을 고양하는 결과를 낳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그의 경제학적 사고와 논리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질 자본이 희소한 반면 인간의 노동은 풍부하고 저렴하다. 의당 권력을 자본가가 소유하고 빈번히 지주들도 권력을 갖는다. 그런데 한 경제가 부유해짐에 따라 물질 자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노동의 중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가들이 부자의 편이 되고, 부유한 국가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편이 되는 것이며, 장기에 걸친 평화와 부의 증대는 사회주의 정서를 고취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노동자가 권력과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성장하여 부유해지게 되면, 지주에서 물질 자본가로 그리고 다시 일반 사람들에게로 권력이 이전 된다는 것이 파레토의 주장이다(Pareto, 1927[1971], p. 298).

파레토는 당시 정치경제학의 약점중 하나로 소득불평등도 정의에 대한 어려움을 논의하고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A와 B라는 두 집단이 있다고 하자. 이때 A

집단에는 연수입으로 10,000 프랑을 갖는 한 개인이 있고, 1,000 프랑을 버는 9명의 개인이 있다. 반면 B 집단에는 연수입으로 10,000 프랑을 갖는 9명의 개인이 있고, 1,000 프랑을 버는 한 개인이 있다. 이 두 집단중 어느 집단의 소득 불평등도가 더 낮은 것인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파레토는 어떤 소득 수준 “X보다 더 작게 받는 사람들 수가 그 보다 더 많게 받는 사람들 수보다 적어지게 되면 소득 비율의 불평등도가 작아진다”고 평등도를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판단은 간명하게 된다(Pareto, 1927[1971] pp. 289-290).

파레토에 따르면 19세기에 소득의 불평등도가 약간 감소하였는데(Pareto, 1927[1971] pp. 290) 이를 앞의 Fig. 56 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ak 선이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로 사라지지 않고는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최소 소득 수준이라고 하면, 기근이 자주 있었던 전근대사회(antiquity)에서는 I 의 형태를 띄고, 근대사회에서는 II 의 형태를 띈다(Pareto, 1927[1971], pp. 285-286). 즉, 근대경제에서는 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평등성이 제고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Pareto, 1927[1971], p. 290), 총소득의 증가가 인구증가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제나 평균소득이 증가하며 이때 바람직한 현상인 ‘최저 생계소득의 증가’ 및 ‘소득의 불평등도 감소’가 함께 관찰된다는 것이다(Pareto, 1927[1971], p. 292).

파레토는 자신이 가난한 계급의 상황을 개선하는 직접적 방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중산층 중 능력있는 자들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상류층 중 무능하고 나태한 자들이 도태되는 자연선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가장 많이 개선된다고 주장한다(Pareto, 1927[1971], pp. 299-301).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2012)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주장한 언어로 다시 쓰면 경제의 착취성이 감소하고 포용성이 증대하는 경제일수록 파레토 효율도 달성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이다. 결국 파레토가 그리는 경제사회의 동학은 경제효율과 성장, 그리고 평등의 증대가 서로 선순환을 보이는 이상향임을 알 수 있다.

IX. 위대한 게츠비: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분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세대간 빈

부의 상속 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김세직(2014)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2005년, 2008년, 2011년 및 2014년 출신학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목고와 강남 지역 일반고 출신이 학생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예상되는 진짜 인적자본의 분포로는 설명될 수 없도록 과도하게 나타났다. 즉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의 세습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능력주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짜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재생산되는 것인 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김세직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이 필수적인 이 시대에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보다 생산성과 외부성이 높은 부문에 잘 배분되어야 하는데, 비싼 사교육을 받고 비싼 등록금을 내는 특수 고등학교를 나오고 비싼 동네에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선행학습하는 등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치장되고 만들어진 모방형 겉보기 인적자원이 축적되고, 우수 명문 대학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공급되고 있는 바, 지난 1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락이 이러한 세대간 부의 이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 이론은 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한계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제공한다. 각 개인의 소득 및 부의 형성에 부모등 가족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엘리트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지 여부는 경제적 불평등 분배를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간 경제력 상속 정도를 알란 크루거(Alan Krueger)는 ‘위대한 게츠비 곡선’의 존재 여부로 규정하고 측정⁸⁾ 하였던 바, 파레토의 이론체계에서 수용 가능한 불평등의 한계는 위대한 게츠비 현상의 심각성 정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 크루거는 2012년 1월 12일 ‘불평등의 증대와 그 결과’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프랜시스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Key Fitzgerald)의 소설 『위대한 게츠비』로부터 개념을 빌려와서 세대간 부의 이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위대한 게츠비 곡선(Great Gatsby Curve)’ 이라고 명명하였다.

X. 결 론

파레토는 균등한 소득 분배 및 재분배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의 소득분배법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정한 불평등 분배구조가 경험적으로 관찰되는데, 이를 보편적 법칙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간 역량의 이질성으로 보았기에 균등분배는 바람직한 이상도 아니라는 것이 파레토의 입장이고 이에 따라 소득의 사회주의적 재분배에 대해 반대한다. 더불어 그의 효율 개념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파레토의 소득 분배에 관한 입장을 보수적으로만 이해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정과 함께 변화와의 균형을 추구한 파레토는 엘리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제가 붕괴하게 됨을 경고하였다. 엘리트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법적 선언으로서의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누구나 출신 배경에 관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회를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에서 찾았다.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과 자본의 비율 변화로 보다 희소해진 노동자의 몫이 증가하고 평균 소득 증가와 함께 그 가 정의한 바에 따른 소득평등도가 제고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파레토의 이론이 우리 시대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까? 최근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현상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균등분배를 한 경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균형이라고 주장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계에서 논의되고 의견이 모아져야 할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이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어느 정도가 수인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파레토는 그 수인의 하한선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파레토의 관점에서는 부의 세대간 이전으로 엘리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의 매우 극심한 불평등은 효율적인 균형상태가 아니다. 좌우 이념의 스펙트럼을 넘어서서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며 풍요로운 경제를 회구할 것인 바, 우리 사회에 있어 세대간 소득 및 부의 대물림이 엘리트의 순환을 어렵게 하는 수준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빈부의 대물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그 제약을 풀고, 파레토가

그렇던 바와 같이 경제효율과 성장 그리고 평등의 선순환이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우리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해 낼 것을 기대한다.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그의 『후생경제학』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학이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와 사명은 “어둠 속에 빛을 던지는 것(Out of the darkness light!)”(Pigou, 1932, p. vii)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1. 김세직,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제53권 제1호, 2014, pp. 3-20.
(Translated in English) Kim, Se-Jik, “Economic Growth and Fair Competition in Education,” *Korean Economic Journal*, Vol. 53, No. 1, 2014, pp. 3-20.
2. 리처드 H. 토니, 『평등』, 김종철 역, 한길사, 1982.
(Translated in English) Tawney, Richard Henry, *Equality*, 3rd Edi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52[1931].
3. 박천익, 『파레토복지경제학』, 대구대학교출판부, 1998.
(Translated in English) Park, Cheonik, *Pareto Welfare Economics*, Daegu University Press, 1998.
4. 앤서니 B. 앳킨슨, 『불평등을 넘어』,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2015.
(Translated in English) Atkinson, Anthony B.,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5. 주중환, 『경제학개론』, 일조각, 1977.
(Translated in English) Joo, Jonghwan, *Introduction to Economics*, Ilchokak, 1977.
6. 한국이론경제연구학회, 『근대경제학사전』, 고승제, 최호진 감수, 신명문화사, 1957.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Association of the Study of Economic Theory, *Dictionary of Modern Economics*, Seungje Ko and Hojin Choi (eds.), 1957.
7.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Crown Business, 2012. [애쓰모글루 대런,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옮김, 시공사, 2012.]
8. Alvaredo, Facundo, Anthony B. Atkinson, Thomas Piketty and Emmanuel Saez, “The Top 1 Percent in Internat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3, 2013, pp. 3-20.
9. Arrow, Kenneth, *Social Choice and Just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4.

10. Baumol, William, *Superfairness*, London: The MIT Press, 1986.
11. Berthoinnet, Irène and Thomas Delclite “Pareto-Optimality or Pareto-Efficiency: Same Concept, Different Names? An Analysis over a Century of Economic Literature,” *Research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nd Methodology*, Vol. 32, pp.129-145.
12. Bivens, Josh and Lawrence Mishel, “The Pay of Corporate Executives and Financial Professionals as Evidence of Rents in Top 1 Percent Incom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3, 2013, pp.57-78.
13. Blaug, Mark,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Fif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4. Burkhauser, Richard V. and Jeff Larrimore, “Corresponde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Winter 2014, pp.245-247.
15. Camerer, Colin and Richard Thaler, “Anomalies: Ultimatums, Dictators and Mann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9, No. 2, 1995, pp.209-219.
16. Cirillo, R., *The Economics of Vilfredo Pareto*, London: Frank Cass, 1979.
17. Corak, Miles,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3, 2013, pp.79-102.
18. Edgeworth, Francis Ysidro, “Pareto, Vilfredo(1848-1923),” *Palgrave Dictionary of Political Economy*, Vol. III, ed. Henry Higgs, London: Macmillan, 1926, pp.710-711.
19. _____, “Supplementary Notes on Statistic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59 (September 1896) Parts II & III (pp.533-534) and Parts I & II of the Appendix (pp.537-539) F. Y. Edgeworth and Vilfredo Pareto “Controversy between Pareto and Edgeworth” *Giornale degli Economisti e Annali di Economia*, Nuova Serie, Volume 67 (Anno 121), N.3 Special issue articles by Pareto in the *Giornale degli Economisti* (Dicembre 2008) pp.425-428.
20. _____, “The Income Curve and the Probability Curve” “La curva delle entrate e la curva di probabilità” *Giornale degli Economisti* (2), 14 (March 1897), pp.215-218 F. Y. Edgeworth and Vilfredo Pareto “Controversy between Pareto and Edgeworth” *Giornale degli Economisti e Annali di Economia*, Nuova Serie, Volume 67 (Anno 121), N.3 Special issue articles by Pareto in the *Giornale degli Economisti* (Dicembre 2008) pp.436-439.
21. Freeland, Chrystia, *Plutocrats: The Rise of the New Global Super-Rich and the Fall of Everyone Else*, Penguin Press HC, 2012.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플루토크라트: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그 나머지』, 박세연 옮김, 열린책들, 2013.]
22. Hicks, John Richard, *Value and Capital: An Inquiry into some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 Theory*, 2nd Editi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46.
23. _____, “Pareto Revealed,” *Economica*, Vol. 28, August 1961, pp.318-322.
24. Kaplan, Steven N. and Joshua Rauh, “Family, Education, and Sources of Wealth among the Richest Americans, 1982-2012,”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 Vol. 103, No. 3, 2013a, pp.158-162.
25. _____, “It’s the Market: The Broad-Based Rise in the Return to Top Tal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3, 2013b, pp.35-56.

26. Koopmans, Tjalling C., *Three Essays on The State of Economic Science*, London: McGraw-Hill Books Company, 1957.
27. Krueger, Alan B.,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ddress as a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January 12, 2012.
28. Loria A., "Obituary: Vilfredo Pareto," *Economic Journal*, Vol. 33, 1923, p.341.
29. Mankiw, N. Gregory, "Defending the One Perc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3, 2013, pp.21-34.
30. _____, "Correspondence: Response from N. Gregory Mankiw,"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Winter 2014, pp.244-245.
31. Okun, Arthur M.,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32. Pareto, Vilfredo, *Cours d'économie politique* 1896, 1897.
33. _____, "The Income Curve and Professor Edgeworth's Observations" *Giornale degli Economisti* (2), 13 (November 1896), pp.439-448 F. Y. Edgeworth and Vilfredo Pareto "Controversy between Pareto and Edgeworth" *Giornale degli Economisti e Annali di Economia*, Nuova Serie, Volume 67 (Anno 121), N.3 Special issue articles by Pareto in the *Giornale degli Economisti* (Dicembre 2008) pp.429-436.
34. _____, "Final Reply to Professor Edgeworth" "Ultima Risposta al Prof. Edgeworth" *Giornale degli Economisti* (2), 14 (March 1897), pp.219-220 F. Y. Edgeworth and Vilfredo Pareto "Controversy between Pareto and Edgeworth" *Giornale degli Economisti e Annali di Economia*, Nuova Serie, Volume 67 (Anno 121), N.3 Special issue articles by Pareto in the *Giornale degli Economisti* (Dicembre 2008) pp.439-440.
35. _____, "The New Theories of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 No. 4 (Sep. 1897), pp.485-502.
36. _____, *Manual of Political Economy*, translated by Ann S. Schwier,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71 a Translation of the 1927(1909) French edition, from the 1906 *Manuale d'Economia Politica*.
37. Persky, Joseph, "Retrospectives: Pareto's Law,"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6, No. 2, (Spring 1992), pp.181-192.
38. Pigou, A. C., *The Economics of Welfare*, Macmillan, 1932(1920).
39.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lknap Press, 2013.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옮김, 글항아리, 2014.]
40.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72.
41. Reich, Robert B, *After Shock: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Knopf, 2010. [로버트 라이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 안진환·박슬라 옮김, 김영사, 2011.]
42. Rosen, Sherwin, "The Economics of Supersta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No. 5, Dec. 1981, pp.845-858.
43. Samuelson, Paul A.,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1947).

44. _____, *Economics*, 11th Edition, McGraw-Hill, 1980(1955).
45. Schumpeter, Joseph, "Vilfredo Pareto, 1848-1923,"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3, May 1949, pp.147-173.
46. Sen, Amartya,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47. Solow, Robert, "Correspondence: The One Percent,"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Winter 2014, pp.243-244.
48. Stiglitz, Joseph E.,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2.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이순희 옮김, 열린 책들, 2013.]
49. Suzumura, Kotaro and Paul Samuelson, "An Interview with Paul Samuelson: Welfare Economics, "old" and "new" and Social Choice Theory," *Social Choice and Welfare*, Vol. 25, No. 2/3, 2005, pp.327-356.
50. Zajac, Edward, *Political Economy of Fairness*, London: MIT Press, 1995.

Pareto Efficiency and Equality*

Suk Ho Kim**

Abstract

Pareto's Law of income distribution accepts a certain level of inequality as natural, while Pareto Efficiency is known to have a trade-off relationship with equality. Both indicate Pareto's conservative nature. Nevertheless, he has a progressive side as well in his pursuit of equilibrium. Pareto claimed that circulation of elite is essential for a well working economy. An economy with severe income inequality in which wealth and poverty are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would not function well. Economic growth may lessen inequality dynamically. Efficiency and equality can be in a virtuous cycle.

Key Words: Pareto efficiency, equality, Pareto principle

JEL Classification: B3, D3, D6, O4

Received: Feb. 5, 2015. Revised: Aug. 31, 2015. Accepted: Sept. 16, 2015.

* I am grateful to Jewon Research Foundation for financial support for this research. I am also thankful to Professor Keehyun Hong, Jeong-Joo Kim, Jinbang Kim, Kwangsu Kim, Kyun Kim, Chon Pyo Lee, Kyu Sang Lee, Namhyong Lee, Sangheon Lee, Sangho Lee, Man-Seop Park for their valuable suggestions at both 2014 Korea's Allied Economic Associations Annual Meeting(12 Feb 2014) and the 43rd Seminar of the Korea History of Economics Society(26 Dec 2014). My appreciation also goes to Professor Tony Brewer who guided me when I began to study Pareto's economics. My thanks go to anonymous referees for comments as well.

**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Phone: +82-2-880-6360, e-mail: sukhokim@snu.ac.kr